

작품 내용

제 목	나는 그냥 파일이 아니에요.
내 용	발표 자료를 만들던 날이었다. 선생님께서는 “저작권을 주제로 자유롭게 생각을 발표해 보자”고 하였고, 나는 멋진 화면을 만들고 싶었다. 검색창에 ‘예쁜 하늘 사진’을 입력하자 수많은 사진이 나타났다. 파란 하늘, 노을, 별빛, 구름. 나는 그중 가장 마음에 드는 사진을 눌러 저장했다. 파일 이름은 이상한 숫자와 영어로 되어 있었다. 나는 별생각 없이 발표 자료의 첫 장에 붙여 넣었다. 그때 문득 이런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나는 그냥 파일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웃음이 났다. 사진이 말을 할 리 없으니까. 하지만 다시 화면을 보니 조금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내가 붙여 넣은 사진은 정말 그냥 컴퓨터 안의 그림일까? 누군가는 그 하늘을 찍기 위해 카메라를 들고 밖으로 나갔을 것이다. 좋은 순간을 기다렸을 것이고, 여러 번 찍은 사진 중 가장 나은 한 장을 골랐을 것이다. 색을 다듬고, 이름을 붙이고, 사람들에게 보여 주기까지 많은 시간이 들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나는 그 모든 과정을 모른 채 ‘저장’ 버튼 하나로 가져온 것이다. 생각해 보니 사진만 그런 것이 아니었다. 내가 듣는 노래 한 곡에는 가사를 쓴 사람, 멜로디를 만든 사람, 부른 사람, 연주한 사람의 노력이 들어 있다. 내가 좋아하는 웹툰 한 장면에는 작가가 밤늦게까지 지우고 다시 그린 선들이 들어 있다. 숙제할 때 참고하는 글에도 누군가의 생각과 시간이 들어 있다. 인터넷에 올라와 있다고 해서 주인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검색 결과에 보인다고 해서 마음대로 가져가도 되는 것도 아니었다. 나는 그날 발표 자료를 다시 열었다. 먼저 내가 사용한 사진의 출처를 찾아 보았다. 그런데 사용해도 되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다. 결국 그 사진을 지우고, 사용 조건이 분명한 무료 이미지 사이트에서 새 사진을 찾았다. 출처를 적어야 하는 자료에는 작은 글씨로 만든 사람과 사이트 이름을 남겼다. 어떤 그림은 마음에 드는 것을 찾지 못해 직접 그렸다. 솔직히 처음에는 귀찮았다. 그냥 복사하고 붙여 넣으면 1분이면 끝날 일을 몇 번이나 확인해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발표 자료가 완성되자 이상하게 더 뿌듯했다. 남의 것을 몰래 가져다 꾸민 자료가 아니라, 내가 지킬 것은 지키며 만든 자료라는 생각이 들었다. 출처를 적은 작은 글씨들이 전에는 방해처럼 보였지만, 이제는 창작자에게 보내는 인사처럼 보였다. “덕분에 좋은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하고 말하는 고마움의 표시 같았다. 저작권은 누군가를 혼내기 위한 어려운 법이라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다르게 생각한다. 저작권은 창작자의 이름을 지켜 주는 울타리이고, 다음 작품을 만들 수 있게 해 주는 응원이다. 우리가 좋아하는 노래와 그림,

영상과 글이 계속 만들어지려면 창작자의 노력이 존중받아야 한다. 정당하게 이용하고, 출처를 밝히고, 허락이 필요한 것은 허락을 구하는 작은 행동이 결국 더 많은 창작물을 태어나게 한다.

나도 가끔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린다. 누군가 내 그림을 마음에 들어 한다면 기쁠 것이다. 하지만 내 이름을 지우고 자기 것처럼 사용한다면 속상할 것이다. 내가 만든 것이 소중하다면, 남이 만든 것도 소중하다. 내가 인정받고 싶은 만큼 다른 사람의 노력도 인정해야 한다.

이제 나는 인터넷에서 마음에 드는 자료를 발견하면 바로 저장 버튼부터 누르지 않으려고 한다. 먼저 묻는다. 누가 만들었을까? 사용해도 되는 걸까? 출처를 남겨야 할까? 이 질문들은 나를 조금 느리게 만들지만, 더 바른 사용자로 만들어 준다.

화면 속 사진과 글과 음악은 말하지 못한다. 하지만 그 안에는 분명 창작자의 목소리가 숨어 있다. “나는 그냥 파일이 아니에요. 누군가의 시간이고, 생각이고, 마음이에요.”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인터넷 세상은 더 안전하고 따뜻한 창작의 공간이 될 것이다.